베르니나 특급(Bernina Express), 제대로 즐기기.

유네스코가 보장하는 풍경 속 철로

빙하에서 야자수까지 지루하지 않은 풍경 다양성
올가을 단 2 회, 베르니나 허브 특급 운행
기찻길 따라 펼쳐진 바이크 트레일 & 편리한 자전거 수송
파노라마와 특산품 안주 삼아 와인 한 잔 홀짝
지속가능한 운행은 기본

베르니나 특급은 스위스를 대표하는 파노라마 기차다. 기차 탑승 자체가 대단한 체험이 되어주는 베르니나 특급을 그냥 기차 여정으로만 생각하는 경우가 많다. 여름 시즌에만 운행하는 베르니나 특급 버스까지 조합을 한다면 하루를 투자해 스위스의 빙하지대부터 이탈리아의 야자수 풍경까지, 그리고 좁다란 마을 골목과 호수를 따라 이어지는 특별한 버스 여행까지 조합해 꽉 찬 체험 여행을 꾸려볼 수 있다. 그러기 위해 베르니나 특급에 대해 꼼꼼히 알아본다.

1. 베르니나 특급: 빙하에서 야자수까지

유럽에서 제일 높은 철도, 세계에서 제일 가파른 철도 기록을 갖고 있는 베르니나 특급은 55 개의 터널과 196 개의 다리를 지나는 특별한 여정을 이어간다. 스위스에서 제일 오래된 마을에서 출발해 낭만적인 야생의 협곡을 지나 화려한 인공 구조물을 건너 빙하지대로 오르고 다시 하강 여정을 이어가 야자수가 늘어선 이탈리아 마을, 티라노(Tirano)에 도착한다. 이보다 더 화려하게 알프스를 건너는 방법은 없다.

2. 유네스코가 선택한 알프스 철도 구간

래티셰반(Rhätische Bahn: RhB)이 운행하는 알불라(Albula) 및 베르니나(Bernina) 철도 구간은 알프스를 통과하며 가장 스펙타클한 절경을 보여 준다. 스위스에서도 가장 아름다운 기차 여정으로 꼽히는 구간이다. 알불라 계곡과 베르니나 고개를 건너는 철도는 엔지니어 기술의 위대함을 인정받아 2008 년 알불라/베르니나 철도가 유네스코 세계유산으로 등록되었다. 그 어떤 시네마보다 낫다는 평으로, 빙하의 풍경이 차창 밖으로 이어진다.

3. 베르니나 특급의 칙칙폭폭 빛나는 여정

이 철도 구간을 가장 잘 감상할 수 있는 방법이 바로 베르니나 특급에 오르는 것이다. 베르니나 특급은 설국의 엥가딘(Egadine) 계곡과 남국의 이탈리아를 연결하는 알프스의 다채로운 면모를 보여주는 아름다운 파노라마 기차다. 짐작이 되듯 높은 고도차로 인해 가파른 철도를 무리 없이 여유롭게 내려간다. 베르니나 특급을 타면 스위스에서 가장 오래된 도시, 쿠어(Chur)가 등 뒤로 멀어진다. 스위스에서도 고성이 많기로 정평 난 계곡, 돔레쉬크(Domleschg)도 멀어진다. 알불라 계곡과 베르니나 고개를 관통하는 인상적인 구간은 튀지스(Thusis)에서 시작한다. 철도 엔지니어링과 루팅에 있어 100 년이 넘은 현존하는 대작이다.

급커브, 대담한 고가, 어지러운 순환 터널이 이 여정을 더 특별하게 만들어준다. 철로와 그림 같은 마을, 와일드한 자연이 조화를 이룬다. 운행하는 기차들이 모두 빨간색이라 “리틀 레드”라는 애칭을 가진

래티셰 철도는 톱니바퀴의 도움 없이 해발고도 1,000m 를 오른다. 가파른 쉰(Schin) 협곡 위 험준한 바위 구간을 따라 달리다가 다시 빼곡한 전나무 숲으로 빠져든다.

지루할 틈 없이 볼거리가 지속적으로 등장하는데, 베르니나 특급 노선 상에서 제일 유명한 고가, 란트바써 철교(Landwasser Viaduct)를 빠른 속도로 지나고, 알불라 터널 반대편으로는 차량 진입이 금지된 베버 계곡(Val Bever) 황금빛 낙엽송이 팔 벌려 기차를 환영한다.

환상적인 빙하의 풍경을 보여주는 모르테라취(Morteratsch)를 지나면서 기차는 더 화려한 여정으로 진입한다. 유명한 곡선 구간이 있는데, 그 이름 자체가 왜 그렇게 많이 사진에 담기는지 말해 준다. '아름다운 산'이라는 뜻의 '몬테 벨로(Montebello)'를 지나며 기차는 장엄한 산과 빙하의 풍경을 한 아름 선사한다. 우아하게 알프스 고지대를 지나며 라고 비앙코(Lago Bianco) 같은 산정 호수를 따라가다가 해발고도 2,253m 에 있는 베르니나 고개를 향해 오른다. 그 어떤 파노라마 루트와도 비교할 수 없는 장관이다.

베르니나 특급을 타면, 이탈리아의 티라노(Tirano)까지 계속 여정을 이어갈 수도 있지만, 대부분의 현지인은 알프 그륌(Alp Grüm: 2,091m)에서 그 여정을 마친다. 포스키아보 계곡(Val Poschiavo)에 있는 역이다. 100 년이나 오래된 기차 역사에는 자그마한 호텔과 레스토랑이 있는데, 대단한 뷰와 맛있는 요리를 선보여 현지인들에게 인기다. 전 세계의 철도 마니아들은 이 호텔에 투숙하면서 기차 트랙 바로 옆에 있는 방에 묵는다. 등반 마니아들은 피츠 팔뤼(Piz Palü) 봉우리와 팔뤼 빙하의 뷰가 펼쳐지는 객실을 선호한다.

티라노까지 여정을 이어갔다면, 베르니나 특급 버스를 이용해 볼 차례다. 티라노에서 남국의 정취를 창밖으로 느끼며 빨간 버스를 타고 다시 스위스로 향할 수 있다. 발텔리나(Valtellina)의 광활한 포도밭, 그림 같은 작은 마을, 꼬모(Como) 호수를 지나 루가노(Lugano)에 도착한다. 단, 버스는 여름 시즌에만 운행하는데, 2023 년에는 10 월 22 일까지는 매일, 10 월 26 일부터 11 월 26 일에는 목요일부터 일요일까지만 1 일 1 회 운행한다.

스위스 트래블 패스 소지 시, 예약비를 제외한 전 구간 탑승이 무료라 더욱 알차다.

4. 올가을 한정템: 베르니나 허브 특급(Bernina Herb Express)

허브의 세상, 발포스키아보(Valposchiavo)로 향하는 여정

6 인 이상이라면 원하는 날짜에 이용할 수 있어

한시적으로 운행하는 특별한 기차가 있다. 베르니나 허스 특급에 올라 르 프레제(Le Prese)까지의 여정을 즐긴다. 레티셰반의 파노라마 기차 1 등석 및 2 등석에 올라 유네스코 세계유산으로 선정된 풍경을 한층 가까이 체험할 수 있다. 발포스키아보에 펼쳐지는 허브 천국의 품에 안겨볼 기회다. 르 프레제에는 발포스키아보에서 100% 공수한 식재료로 정성껏 만든 점심 식사를 즐길 수 있다. 허브 밭 투어에서 알프스 천연 허브가 내뿜는 아로마에 취해볼 수도 있고, 유기농 허브티를 생산하는 라셀리 에르보리스테리아 비올로지카(Raselli Erboristeria Biologica) 생산 시설을 둘러볼 수도 있다. 다시 베르니나 특급에 올라 여정을 이어갈 수도 있고, 자유롭게 일반 기차로 이동해도 된다. 베르니나 허브 특급은 2023 년 9 월 29 일 금요일과 10 월 27 일 금요일에 운행한다. 쿠어-르 프레제 구간 왕복 티켓과 좌석 예약, 허브티, 점심 식사, 투어, 기념품을 포함한 요금은 1 등석 CHF 293, 2 등석 CHF 203 이며, 스위스 트래블 패스 소지 시 1 등석 및 2 등석이 CHF 93 이다. 6 인 이상의 그룹일 경우, 사전 예약을 통해 2023 년 10 월 31 일까지 매일 이용할 수 있다.

5. 레일 & 바이크

레티셰반이 기차를 운행하는 그라우뷘덴(Graubünden) 주에서는 원하는 방식으로 기차와 자전거를 조합할 수 있다. 철로를 따라 수많은 자전거 길과 트레일이 펼쳐진다. 기차와 철교 뷰를 더 가까이 감상할 수도 있다. 레티셰반 직원들에게 문의하면 최고의 투어를 알려주기도 한다.

자기 근육의 힘 만으로 혹은 전기의 힘을 빌려 정상을 향해 페달을 밟아 나간다. 그라우뷘덴에 있는 자전거 트레일은 이정표가 설치된 거리만 합쳐도 4,000km 가 넘을 정도로 선택지가 많다. 요즘에는 아로자(Arosa)에서 리트치뤼티(Litzirüti)까지 킥 스쿠터로 달리는 게 유행이다. 이바이크로 스위스 판 그랜드캐니언을 달려볼 수도 있다. 마운틴 바이크로 베르니나 고개(Bernina Pass) 루트를 달려봐도 좋다. 갑자기 체력이 부족해진다 해도 걱정할 것은 없다. 그라우뷘덴패스 바이크(graubündenPASS Bike)만 있으면 자전거 기차 수송이나 셀프서비스 바이크 수송이 편리하기 때문이다.

6. 기차 위 다이닝

베르니나 특급에는 식당칸이 없는 대신, 이동식 미니바가 승객들에게 맛있는 즐거움을 선사해 준다. 알프스 산에서 만든 치즈 플래터, 소고기 건조육 플래터 같은 지역 특산품 먹거리도 선보인다. 쿠어 호두 타르트, 엥가딘 헤이즐넛 핑거, 서양배 빵 같은 전통 디저트도 있다. 여기에 품질 좋은 원두를 사용한 커피나 유기농 허브티를 곁들여도 좋고, 그라우뷘덴 맥주나 와인을 곁들여도 훌륭하다.

7. 지속가능한 철도 사업의 선두주자

래티셰반이 조달하는 에너지의 원료 및 운행 지역에서의 개발에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은 지속가능성이다. 이미 2013 년부터 기관차와 시설에서 사용하는 에너지의 100%를 수력전기로 전환했고, 기차와 기차 역사에 필요한 에너지는 지속해서 최적화되는 시스템을 갖췄다. 이를 위해 탄소가 최소화된 외부 공기 컨트롤, 난방을 위한 재생 에너지 사용, 현대적인 재활용 방식 등이 도입됐다.

자료제공: 스위스정부관광청 www.MySwitzerland.co.kr

Switzerland Tourism Korea
77 Songwol-gil, Jongno-gu, Seoul 03165
MySwitzerland.com